

2022년 12월 4일

금문교회 대강절 제2주일예배 GGPC 2nd Advent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시라 그들을 놀래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Why do the nations rage

and the peoples plot in vain?

2 The kings of the earth set themselves,

and the rulers take counsel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saying,

3 “Let us burst their bonds apart

and cast away their cords from us.”

4 He who sits in the heavens laughs:

the Lord holds them in derision.

5 Then he will speak to them in his wrath,

and terrify them in his fury, saying,

6 “As for me, I have set my King

on Zion, my holy hill.”

시편 Psalm 2:1-6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의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 아침,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한 영의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임마누엘의 참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으로 소망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과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성탄의 은혜가 재림의 은총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 Holy Communion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f]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g] 25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26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27 Whoever, therefore,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concerning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28 Let
a person examine himself, then, and s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29

For anyone who eats and drinks without discerning the body eats and drinks judgment on himself.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1:23-29

오늘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죄악 된 세상에서 주님의 보혈로써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주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For To US A Child Is Born

이사야 Isaiah 9:1-7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But there will be no gloom for her who was in anguish. In the former time he brought into contempt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but in the latter time he has made glorious the way of the sea, the land beyond the Jordan, Galilee of the nations.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The people who walked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Those who dwelt in a land of deep darkness, on them has light shone.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였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You have multiplied the nation. You have increased its joy. They rejoice before you as with joy at the harvest. As they are glad when they divide the spoil.

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멩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For the yoke of his burden, and the staff for his shoulder, the rod of his oppressor, you have broken as on the day of Midian.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겹옷이 불에 썩같이 살라지리니

For every boot of the tramping warrior in battle tumult, and every garment rolled in blood will be burned as fuel for the fire.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of peace there will be no end,

on the throne of David and over his kingdom, to establish it and to uphold it with justice and with righteousness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more.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do this.

오늘부터 한 달은 사도행전 강해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집중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Isaiah), 두 번째 주일은 마태복음(Matthew)으로 설교합니다. 세 번째 주일은 김위동 선교사님께서 증거하십니다. 네 번째 주일이며 성탄주일에는 누가복음(Luke)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사야(Isaiah)는 주전 8세기에 사역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남유다 (Judah)에서 예언했습니다. 같은 시기 남유다에는 다른 예언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미가(Micah)였습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점에서 일치합니다.

이사야는 네 명의 유다 왕들 시대에 사역했는데, 웃시야(Uzziah), 요담(Jothan), 아하스(Ahaz), 그리고 히스기야(Hezekiah)입니다.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 유다는 북 이스라엘(N Israel)과 아람(Aram, 시리아)이 정치-군사적으로 연맹(politico-military league)한 데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하스는 그의 아들을 이방신에게 불태워 제사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불신앙의 늪으로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이사야는 “살롬”으로 선포했습니다.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아람 연맹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말씀하시면서, 영혼과 육신을 영원히 지옥 불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But I will warn you whom to fear. Fear him who, after he has killed, has authority to cast into hell. Yes, I tell you, fear him!
누가복음 Luke 12:5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인간 나라를 겁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Messiah) 곧 그리스도(Christ)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내리실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사회와 문화와 세대는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 날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는 인간을 두려워하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동물의 세계에서 같은 종류를 적으로 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배경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자기의

도구로 삼아 인간을 파멸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탄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경에 드러난 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대신 죄악이 인간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삶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For to set the mind on the flesh is death, but to set the mind on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로마서 Romans 8:6

모든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인간구원입니다. 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유다는 죽음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2천 년 전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성경을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을 “기다림”입니다. 대강절은 이런 의미에서 “기억”과 “기다림”의 양면을 동시에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묵상합니다.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But there will be no gloom for her who was in anguish. In the former time he brought into contempt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but in the latter time he has made glorious the way of the sea, the land beyond the Jordan, Galilee of the nations.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로써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은 “흑암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흑암의 세력 안에서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불론(Zebulun) 땅과 납달리(Naphtali) 땅으로 대표되는 자들이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 이후,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Galilee)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역사적으로 배척되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들 지역은 세상의 모든 어둔 곳을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입니다.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The people who walked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Those who dwelt in a land of deep darkness, on them has light shone.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였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You have multiplied the nation. You have increased its joy. They rejoice before you as with joy at the harvest. As they are glad when they divide the spoil.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셨고,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고,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슬픔을 벗고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For the yoke of his burden, and the staff for his shoulder, the rod of his oppressor, you have broken as on the day of Midian.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억압에서 벗어났습니다. 기드온 300명 군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셨습니다.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겹옷이 불에 썩같이 살라지리니
For every boot of the tramping warrior in battle tumult, and every garment rolled in blood will be burned as fuel for the fire.

보십시오. 전투하는 군인들의 군화와 피 묻은 겹옷이 불에 살라집니다. 썩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써 전쟁이 그쳤기 때문입니다.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뜻은 임마누엘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써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분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of peace there will be no end, on the throne of David and over his kingdom, to establish it and to uphold it with justice and with righteousness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more.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do this.

그분의 통치와 평강은 무궁합니다. 무궁히 더해질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이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의 계절은 비즈니스 하는 자들의 기회가 아닙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슴에 차고 넘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아멘.

창조 이전의 세상에 창조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deep.
창세기 Genesis 1:2b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God saves!

인간 세상을 생각합니다. 이런 악독한 일이 또 있습니까? 억눌린 자는 계속 억눌리고, 가난한 자는 가난을 면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악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세상에서 잠시 잘 살고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결국 지옥 불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 그것은 “복된 소식”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죄악에 매여 사망의 늪에 빠져 허덕이던 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Immanuel)을 소망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밤,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 대부분은 성탄절을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란하고 요란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생각과 주님의 은혜 감사가 없습니다.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수년 전에 밀브레이(Millbrae)에서 어떤 주택가 집 뜰에 성탄장식 중에 아기예수를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빈 구유”를 사진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찬란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성탄. 시대를 풍자하는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보십시오.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써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품고 살아오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열 명의 처녀들이 다 신랑을 기다렸지만,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런 점에서 “기름”은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달리,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But to those who are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24

나는 금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되 등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누구도 우리 중에 점이나 흠이나 티가 없이, 주님께서 오실 때 천국에 들림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the Perfector of faith.

히브리서 Hebrews 12:2a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이 깊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된 성탄 계절에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